

# 국제간호협의회 '전략적 계획' 발표

## 글로벌 간호 비전과 미션 ... 4대 목표 및 핵심가치

국제간호협의회(ICN)는 비전 및 미션 아래 앞으로 5년간 추구할 4대 목표 및 24개 실천사항, 3가지 축 및 4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2019-2023)'을 발표했다. 전략적 계획은 IC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할 사업 및 활동을 요약한 것이며,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단 참조]

◇비전은 국제사회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전문직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투자한다.

◇미션= 전 세계 간호전문직을 대표해 간호사들의 안녕(웰빙)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며, 모든 정책에 건강이 반영되도록 한다.

### ◇4대 목표

1. 글로벌 영향력(Global Impact)=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계와 지역 차원의 건강, 사회, 교육,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2. 회원 역량강화(Membership Empowerment)=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CN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각국 간호협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전략적 리더십(Strategic Leadership)=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고, 인구(국민), 보건의료시스템, 간호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4. 혁신적 성장(Innovative Growth)=IC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에 일치하는 사업 및 수익 창출 기회를 발굴하고 확보하며 다각화한다.

### ◇3가지 축

1. 전문적 간호실무(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2. 간호규정(Nursing Regulation) 3. 간호사의 사회경제적 복지(Socio-economic Welfare for Nurses)

### ◇4가지 핵심가치

1. 사회정의(Social Justice)=간호전문직과 사회를 위한 평등과 공정성 실현
2. 책임성(Accountability)=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정보기반의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보장
3. 수용성(Inclusiveness)=폭넓은 파트너, 회원 및 관점 수용
4. 혁신성(Innovativeness)=창의적, 변혁적, 진취적, 근거중심적, 솔루션 지향적이어야 함



## ICN 1899년 창립 ... 올해 120주년 맞아

### 한국, 현재 제3부회장 배출한 이사국

국제간호협의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는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1899년 창립됐다.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다. ICN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홈페이지 www.icn.ch

ICN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CNR: Council of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Representatives)가 2년마다 개최되며, 각국 간호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4년마다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선출한다.

세계 간호사들이 모이는 학술대회인 Congress and Conference가 2년마다 교대로 열렸으며, 2017년부터는 명칭을 Congress로 통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49년 ICN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1989년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gress), 2015년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ference)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현재 한국은 신성례 ICN 제3부회장을 배출한 이사국이다.

이에 앞서 하영수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1977년 ICN 간호사업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모의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ICN 이사를 지냈고, 동양인 최초로 1989년 ICN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김순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업전문위원이 ICN 이사로, 김의숙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ICN 이사로 선출돼 활동했다.

ICN 로고는 사람과 등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역동성과 유연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를 의미하며, 등불은 세계적으로 간호사와 간호를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밑받침, 등불, 불꽃, 지구본으로 구성됐다. 이는 통합, 힘(영향력), 전체성, 균형을 상징한다. 불투는 간호와 건강을 상징하며, 엘로우는 간호전문직의 뜻을 함을 보여주는 컬러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치매 위험요인 남녀 다르게 나타나

### 여자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 남자는 저체중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서상원 교수)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장대사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심장대사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은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고, 대뇌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남녀별 심장대사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게재됐다. 인지 기능이 정상인 65세 이상 노인 1322명(남자 774명, 여자 548명)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했고, 심장대사 위험

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고, 특히 비만 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를 주도한 서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장대사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 '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원됐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연구결과는 남녀별로 치매 발생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이 91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1017개로 확대됐다. 신규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신청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됐다.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 희귀질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17~2021)' '희귀질환지원대책'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

### 신간

'삼남길 이야기' ... 글·사진 조유향

## 해남에서 서울까지 역사와 함께 걷다



"사람만이 길을 걷는 게 아난가 보다. 햇빛이, 바람이, 물이, 짐승이 지나간 흔적이 길 위에 있다." 조유향 전 초당대 간호학과 교수가 해남 땅끝에서 서울 구파발까지 두 발로 걸으며 보고 느낀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의 스토리를 담은 '삼남길 이야기'를 펴냈다.

삼남길은 조선시대 전라, 충청, 한양을 잇던 옛길 전리를 말한다. 현재는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자연과 문화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문화탐방로로 조성돼 있다.

조유향 전 교수는 "일터와 집으로만 오가던 바쁜 일상 중 어느 날 차모임을 통해 일본 시코쿠 순례길을 걷게 된 이후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무등산 둘레길 등 이곳저곳을 걸었다"면서 "삼남길은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5년에 걸쳐 47개 코스 총 600km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삼남길은 스토리가 있는 길이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며 유적지이기도 하다.

조유향 전 교수는 "예순이 넘는 나이에 온종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스스로 놀라웠고, 걷는 것이 즐거웠다"며 "삼남길은 힐링의 시간으로 기억되며, 한 구간씩 걸으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늘었고 벅찬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책은 △전라남도 삼남길 △전라북도 삼남길 △충청남도 삼남길 △경기도 삼남길 △서울시 삼남길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어 볼거리를 더했다.

조유향 전 교수는 2018년 2월 정년퇴임했다. 한국노년학연구회 회장,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부회장, 지역사회간호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출판 현자 / 448쪽 / 20,000원)

최유주 기자 yjchoi@

## 산골간호사의 묵상에세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글·사진 박도순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소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진료실이나 회관, 논둑, 밭둑 같이 간호현장이었다. 산골간호사라는 명함으로 만난 어르신 모두는 나의 스승이었다."

박도순 전북 무주군 공진보건진료소장이 산골간호사의 묵상에세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펴냈다.

앞서 수필집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사진집 '포내리 사람들'과 '포내리 사람들 II'를 통해 보건진료소장으로서 만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 농촌의 생활 풍경과 자연을 소재로 한 사진을 선보였던 그가 이번에는 묵상에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책을 펴냈다.

봄·여름·가을·겨울 4부로 엮은 36편의 수필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지혜를 전해주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겼다. 읽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의 정을 느끼면서 인생을 통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준다.

특히 여러 미술대전과 사진전에서 수상했고, 사진집을 펴낸 박도순 소장의 작품사진을 풍부하게 실어 사색의 깊이를 더해준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꽃망울부터 한여름 빗방울을 머금은 이파리, 가을빛 풍성한 단감, 눈꽃이 내려앉은 나뭇가지까지 섬세한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잠시 생각을 멈추게 한다.

"보건진료소에서 나는 아픔을 듣고 분노를 듣고 기쁨보다 슬픔을 더 많이 듣는다. 강력한 침력을 자랑하는 기계가 나온다 해도 결코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와 kg과 mmHg 같은 것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박도순 소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분들의 위대한 삶에 어머니! 세상에! 같은 공감의 추임새를 가까이 불러드리면서, 하루하루 그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출판 생명의 양식 / 235쪽 / 13,000원)

정규숙 기자 kschung@

# ICN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2019-2023

## 1.글로벌 영향력 (Global Impact)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계와 지역 차원의 건강, 사회, 교육,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 2.회원 역량 강화 (Membership Empowerment)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CN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각국 간호협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IC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에 일치하는 사업 및 수익창출 기회를 발굴하고 확보하며 다각화한다.

## 4.혁신적 성장 (Innovative Growth)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고, 인구(국민), 보건의료시스템, 간호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 3.전략적 리더십 (Strategic Leadership)

